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3.07.19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 집행위, ERA 및 연구경력지원 강화 전략 발표(7.13)

- 집행위는 유럽단일연구공간(ERA) 강화 및 연구경력 지원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(이사회 권고안)을 제안함
- 제안된 이사회 권고안은 ①새로운 유럽 연구경력 프레임워크 수립, ②연구자 현장 및 연구원 채용 행동강령 업데이트, ③유럽 연구원 역량 프레임워크(ResearchComp) 등 세 가지 사항으로 구성됨

- ① 새로운 유럽 연구경력 프레임워크는 연구자 및 연구직의 정의, 채용 및 근무조건 개선, 공정한 경력 개발, 공정한 인재 순환, 연구경력 지원 강화 조치 등을 다룸
- ② 새로운 현장 및 행동강령은 연구경력 지원 강화의 관점에서 이전의 연구자 현장(2005)을 수정 및 보완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연구자 고용 관련 기본 원칙을 제시
- ③ ResearchComp은 연구자, 대학·교육기관, 기업, 정책입안자 등 관련 부문 이해관계자들이 연구자의 역량을 측정하거나, 인재양성·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

○ 집행위 연구혁신 총국장, '28-34 FP10 계획 구상(7.13)

- DG RTD 총국장 Lemaitre는 12월경 HE 중간평가와 H2020과의 비교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, 결과는 향후 FP10의 구상에 반영될 예정
- FP10은 유럽 내 균형 잡힌 R&I 성과 창출(중동부 유럽의 R&I 성과 창출 지원 확대) 및 국제협력 강화(준회원국 가입 촉진)에 주력할 예정
- 한편, DG RTD는 향후 3년간 950명의 직원 중 75명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
- ※ 이는 몇 년 전 집행위가 DG RTD를 R&I 정책 및 호라이즌 프로그램 설계에 집중시키고 연구 보조금의 이행을 집행기관으로 이전하기로 계획한 결정에 따른

○ EU 회원국, '24년 제안된 HE 예산에서 1억 6,600만 유로 삭감 제안(7.13)

- 집행위는 최근 계속되는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'24년 HE 예산을 기존보다 4억 유로 증액한 128억 유로를 제안하였으나, EU 이사회는 제안된 금액에서 1억 6,600만 유로를 삭감할 것을 제안함

- (기타) ▲(KBA Europe) EU 집행위, '웹4.0' 및 '가상세계' 전략 발표(7.12) ▲일본-EU 제1차 디지털 파트너십 협의회 주요 결과(7.13) ▲HERA Invest 창설, 보건 위협에 대한 혁신적인 솔루션에 1억 유로 제공(7.12) ▲집행위, 새로운 10개 호라이즌 유럽 파트너십 후보 제안(7.17) ▲ESFRI, 연구인프라의 에너지 및 공급 문제에 대한 보고서 발행(7.12) ▲유럽연구위원회(ERC), '24년도 워크프로그램 채택(7.11)